실학과 새로운 예술은 무엇을 새롭게 보았을까?

질문 23개 · 확인 문제 24개 · 정답과 해설 포함

이 단원에서 이어 볼 흐름

앞 단원에서는 생산과 거래가 늘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고, 신분과 경제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봅니다. 다른 나라의 문물을 접하는 일이 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조선의 제도와 생활을 고치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역사·지리·언어와 산천을 자세히 살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림 1 **새롭게 살핀 네 가지 대상** 교류·개혁·국학·예술은 관심이 향한 대상을 구별한 것입니다. 네 단계가 차례로 끝난 뒤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 단원의 네 갈래

갈래	중심 질문	대표 단서
교류와 새 지식	어디에서 무엇을 접했을까?	통신사 · 연행사 · 서학
현실을 고칠 방법	생활을 개선하려고 무엇을 바꾸려 했을까?	실학 · 토지 개혁 · 북학
우리에 관한 연구	우리의 과거와 삶의 터전을 어떻게 조사했을까?	국학 · 역사 · 지리 · 언어
예술의 변화	무엇을 표현하고 어떤 방법을 썼을까?	현실 비판 · 진경 산수화 · 추사체 · 청화 백자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1부 다른 나라와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다

Q01 통신사는 일본에 조선 문화를 가르치러만 갔나요?

한 줄 답 외교 업무를 맡은 사절단이었으며, 그 왕래를 통해 문화와 물자가 서로 오갔습니다.

낯선 말

통신사	조선이 일본에 보낸 사절단. 이 단원에서는 왜란 뒤 국교를 회복한 이후의 파견을 다룸.
사절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 업무를 맡은 사람.
국서	나라 사이에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문서.
쇼군	일본 무사 정권의 우두머리.
막부	쇼군이 다스리던 일본의 무사 정권.

표 통신사의 업무와 교류

구별	한 일 또는 영향
공식 업무	국서 전달, 외교·무역 업무 처리, 일본 정세 파악
조선에서 일본으로	학자·의원·화원 등이 성리학·의학·그림 등을 전함
일본에서 조선으로	일본의 학문과 문물을 접하고 돌아옴
구체적 사례	통신사로 간 조엄이 고구마를 들여와 보급의 계기를 마련함

설명 전쟁이 끝났다고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과 일본은 관계를 다시 맺은 뒤 사절을 주고받았습니다. 통신사는 주로 일본에서 쇼군이 바뀔 때 일본의 요청에 따라 파견되었습니다. 일행에는 외교 담당자뿐 아니라 학자·의원·화원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인의 글씨와 그림을 구하거나 학문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조선 사절도 일본의 지식과 생활을 살폈습니다. 조엄이 먹을거리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고구마에 관심을 가진 것도 그 예입니다. 따라서 통신사를 '한쪽이 가르치기만 한 집단'으로 보면 교류의 절반을 놓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일본에 문화를 전했으므로 조선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에서도 일본의 학문과 문물을 접했다**

시험 포인트 **일본·쇼군·국서 → 통신사**로 묶습니다. '문화 전파'와 함께 '상호 교류'도 기억합니다.

Q02 연행사는 통신사와 무엇이 달랐나요?

한 줄 답 연행사는 청에, 통신사는 일본에 보냈으며, 연행사는 중국과 서양의 문물을 접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낯선 말

연행사	청의 수도 연경을 다녀오는 조선의 사절단.
연경	오늘날 베이징을 가리키던 이름.
칙사	황제가 보낸 사신. 이 단원에서는 청이 조선에 보낸 사절을 가리킴.
문물	제도·기술·학문·물건 등 사회의 문화를 이루는 여러 요소.

표 통신사와 연행사의 비교

기준	통신사	연행사
보낸 나라 → 간 나라	조선 → 일본	조선 → 청
대표 목적지 단서	에도, 쇼군	연경, 청 황제
공통 역할	외교 업무, 문화·경제 교류	외교 업무, 문화·경제 교류
특히 연결할 내용	일본과 학문·의학·그림 등 교류	청의 발달한 문물과 서양 지식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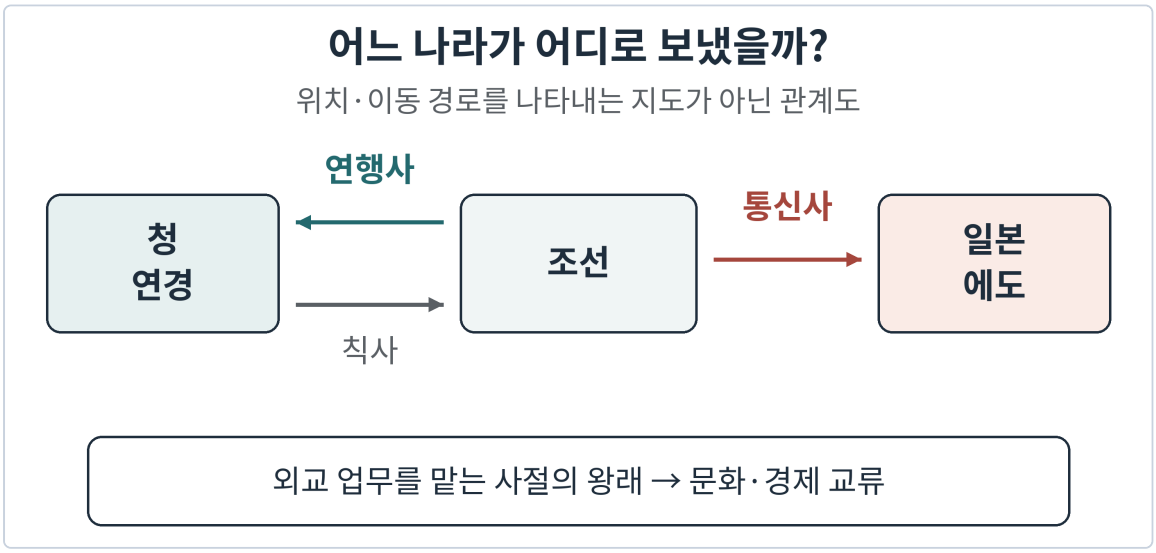


그림 2 **사절의 목적지부터 구별하기** 연행사·통신사·칙사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화살표로 구별합니다.



그림 3 **통신사와 연행사의 길** 통신사는 일본의 에도로, 연행사는 청의 연경으로 향했습니다. 주요 경유지를 따라 두 길을 구별합니다.



그림 4 **연경에서 청의 학자와 천문 기구를 살펴보는 모습(상상도)**

설명 병자호란 직후에는 청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청의 지배가 안정되고 두 나라 관계가 이어지면서, 조선 사절들이 청의 도시·시장·기술을 직접 볼 기회도 늘었습니다. 외교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상대의 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연경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선 사절들은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고, 천주당에서 서양 선교사를 만나 천문학과 기구에 관한 지식을 얻기도 했습니다. 연행을 경험한 지식인 중에는 청을 무조건 낮추어 보기보다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행로에서는 무역도 이루어졌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청에 다녀온 조선 사절을 칙사라고 한다	조선에서 청에 보낸 사절은 연행사이다
청에 반감을 가졌으므로 청과의 접촉도 계속 끊겼다	외교와 교역이 이어지며 새로운 지식을 접했다

시험 포인트 **연경·청·서양 선교사와 접촉 → 연행사**입니다. 목적지는 청이어도 그곳에서 얻은 지식은 중국 것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Q03 서학을 공부했다면 천주교를 믿었다는 뜻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서학에는 천주교뿐 아니라 서양의 과학과 여러 문물도 포함되므로, 지식 연구와 신앙 수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낯선 말

서학	당시 전해진 서양의 학문·과학 지식과 천주교 등을 부르던 말.
천리경	먼 곳을 볼 수 있게 만든 망원경.
자명종	정해진 때를 소리로 알려 주는 시계.
수용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들임.

표 지식과 신앙의 구별

자료에 나온 행동	직접 알 수 있는 것	바로 단정할 수 없는 것
세계 지도를 살펴봄	새로운 지리 지식에 관심을 가짐	천주교 신자가 되었음
망원경·시계를 관찰함	서양 기구와 기술을 접함	기존 학문을 모두 버렸음
천주교 교리를 믿고 실천함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임	모든 서학 연구자가 같은 선택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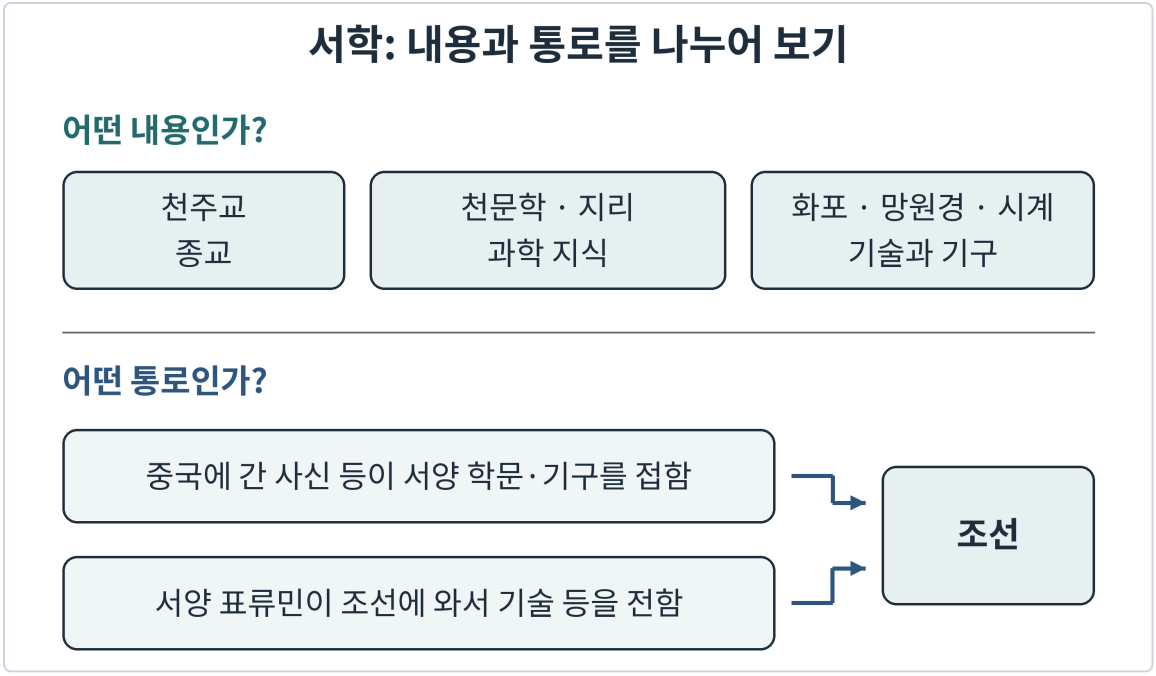


그림 5 **서학의 내용과 들어온 통로** 서학에 포함된 내용과 조선에 들어온 통로를 나누어 봅니다.

설명 조선은 17세기 초부터 중국을 오가는 사신 등을 통해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지도·화포·천리경·자명종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과 지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학은 이 가운데 종교 하나만 가리키는 말로 좁혀 읽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운 천주교의 전래와 신앙 수용(Ⅴ -2 사회 변화와 농민의 봉기)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새로운 지식으로 연구한 단계와 나중에 종교로 받아들인 단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천주당에서 천문 기구를 보았다는 자료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료가 **학문·기구의 연구**를 말하는지, **교리의 신앙 수용**을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Q04 서양 문물은 조선 사람이 유럽에 가서 가져온 것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중국에 간 사신이 그곳에서 접하거나, 조선에 표류해 온 서양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낯선 말

표류	배가 바람이나 해류에 밀려 예정한 항로를 벗어나 떠다니는 일.
선교사	다른 지역에 종교를 전하러 간 사람.
귀화	다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
소현 세자	인조의 아들. 병자호란 뒤 청에 볼모로 가 있었음.
아담 샬	청에서 활동한 서양 선교사.
할러슈타인	연경의 천주당에 있던 서양 선교사.

표 사람·만난 곳·전해진 내용

사람 또는 만남	장소·경로	연결할 내용
소현 세자와 아담 샬	청에서 만남	서양 학문과 기구를 접함, 소현 세자가 귀국하며 여러 문물을 가져옴
벨테브레이	조선에 표류	조선에 귀화해 박연이라는 이름을 사용, 화포 제작·사용 기술을 전함
하멜 일행	제주도에 표착	조선에 13년가량 머물다 탈출하여 네덜란드로 돌아감. (참고: 이 경험을 적은 기록이 『하멜 표류기』)
홍대용과 할러슈타인	연행 중 연경에서 만남	천문학·관측 기구 등에 관한 지식 교류

설명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며 천문학과 과학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사람이 유럽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서양 지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소현 세자와 홍대용의 사례는 이 통로를 보여 줍니다.

반면 벨테브레이와 하멜 일행은 배가 표류하여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조선 정부가 유럽에 보내 데려온 사절이라고 설명하면 잘못입니다.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뿐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벨테브레이와 하멜은 조선이 파견한 사절이다	조선에 표류해 온 서양인이다

시험 포인트 인물 이름이 많을 때는 **중국에서 만남 / 조선에 표류**라는 두 경로로 먼저 정리합니다.

Q05 세계 지도·시헌력·지전설은 모두 같은 과학 지식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세계 지도는 지리, 시헌력은 달력(역법), 지전설은 지구의 운동에 관한 지식입니다.

낯선 말

역법	해와 달 등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날짜와 절기를 정하는 방법.
시헌력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져 청에서 사용되던 역법. 조선에도 도입됨.
자전	천체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
지전설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주장.
세계관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관한 생각.
마테오 리치	명에서 활동한 서양 선교사.
김육	대동법 확대 시행과 시헌력 도입에 힘쓴 조선의 관리.

표 새 지식이 넓힌 이해

대상	인물	무엇을 새롭게 이해했나?
『곤여만국전도』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 지도	넓은 세계와 여러 지역의 위치
시헌력	김육 등이 도입에 기여	천문 지식을 활용한 날짜·절기의 계산
지전설(지구 자전)	홍대용	지구 자체가 움직인다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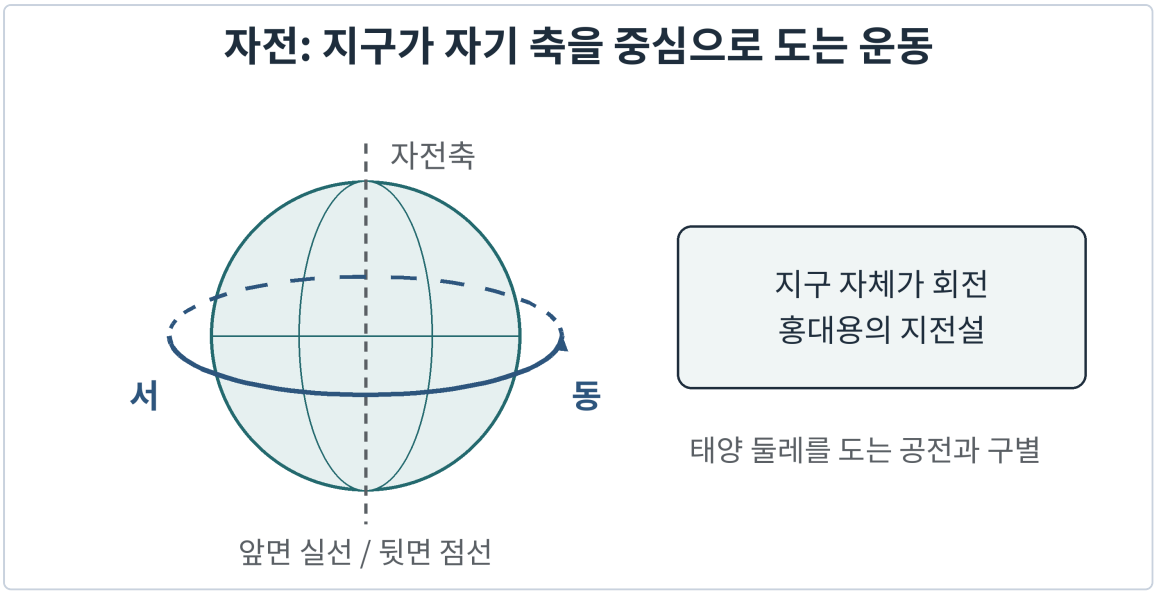


그림 6 **자전이라는 말의 뜻** 앞면의 회전 화살표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합니다. 지구가 자기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설명 지도에 낯선 지역이 많이 나타나면 자신이 알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천문 관찰을 활용한 역법과 지구의 운동에 관한 설명도 기존 생각을 다시 살피게 했습니다. 이런 지식은 중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던 태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마테오 리치—세계 지도 / 김육—시헌력 / 홍대용—지전설(지구 자전)**을 구별합니다. 자전은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공전과 다른 말입니다.

Q06 의학서와 농서는 왜 함께 배우나요?

한 줄 답 **병을 치료하고 농사를 개선하는 등 실제 생활에 쓸 지식을 정리한 성과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농서	농사 방법과 관련 지식을 정리한 책.
체질	사람마다 다른 몸의 성질과 특징.
사상 의학	이제마가 사람의 체질을 네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의학 체계.
백과사전적	여러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모아 정리한 성격.

표 의학과 농업의 연구

분야	인물·성과	핵심 내용
의학	허준·『동의보감』	중국과 조선의 의학 지식을 정리하고 전통 의학을 체계화함. 광해군 때 간행
의학	이제마·사상 의학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치료를 설명
농업	신속·『농가집성』	모내기법 등 농사 방법을 소개
농업·농촌 생활	서유구·『임원경제지』	농업을 비롯해 농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폭넓게 정리

설명 지식을 책으로 정리하면 한 사람이 알고 있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어 발전시키기 쉬워집니다. 의학과 농업은 분야가 다르지만 백성의 건강과 생계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조선의 연구가 전부 서양 지식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동의보감』처럼 기존의 의학 지식을 정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 **시험 포인트** 책을 먼저 **의학 / 농업·생활**로 나눈 뒤 저자를 붙입니다. 『동의보감』은 허준, 『농가집성』은 신속입니다.

2부 생활을 고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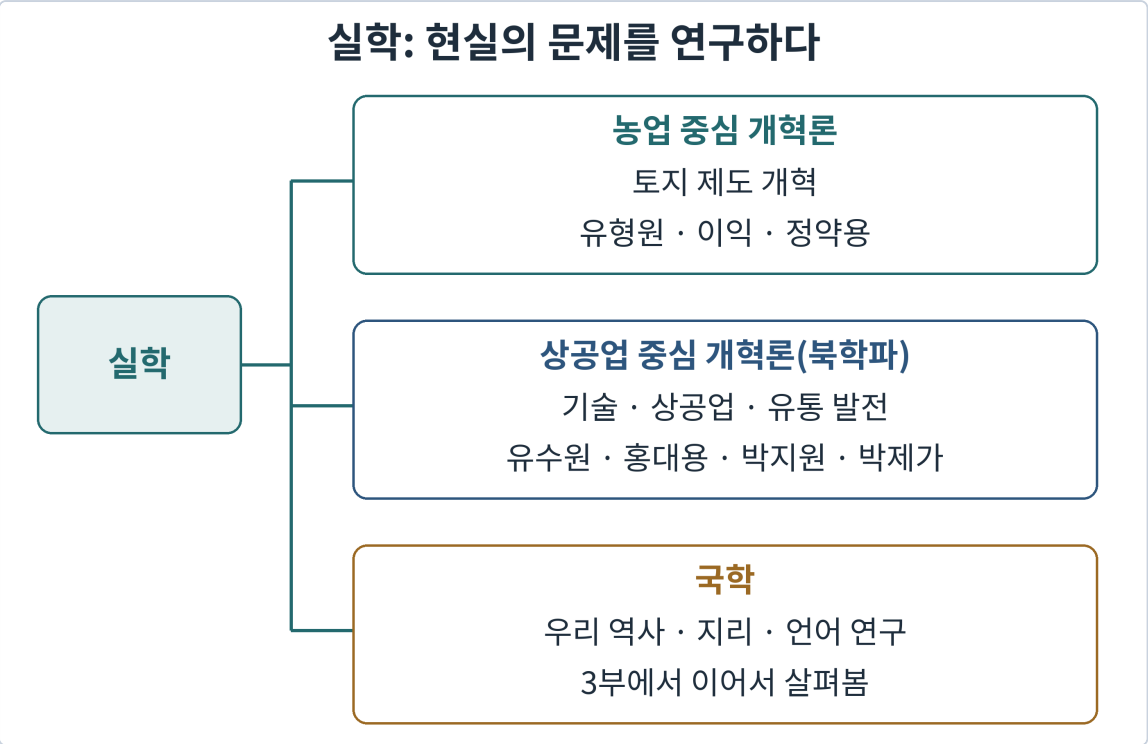


그림 7 **실학의 갈래** 토지 제도, 기술·상공업, 우리 역사·지리·언어라는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실학의 갈래를 정리합니다.

표 실학의 갈래

갈래	중심 과제	인물·다음 내용
농업 중심 개혁론	토지 제도를 고쳐 농민 생활 안정	유형원 · 이익 · 정약용
상공업 중심 개혁론(북학파)	기술·상공업·유통 발전	유수원 · 홍대용 · 박지원 · 박제가
국학	우리 역사·지리·언어 연구	3부에서 이어서 살펴봄

Q07 실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한 줄 답 사실과 자료를 살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 경향으로, 사회 제도와 역사·지리 등도 연구했습니다.

낯선 말

실학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중시한 학문 경향.
실증적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며 판단하는 태도.
개혁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제도·방식을 고침.
성리학	인간과 사회의 도리를 탐구한 유학의 한 갈래로 조선의 정치·사회에 큰 영향을 준 학문.

표 실학자가 던진 현실의 질문

눈앞의 문제	연구·개혁의 방향
농민이 경작할 땅을 잃음	토지 제도와 농민의 생활 기반을 개선
물건을 만들고 옮기는 일이 불편함	기술·상공업·유통 발전
우리의 과거와 지역 정보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음	역사·지리·언어 연구

설명 전쟁 뒤 조선 사회가 변하면서 토지의 불균등, 농민 생활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추상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자료와 현실을 살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농민에게 땅을 어떻게 마련해 줄지, 물자를 어떻게 옮길지 역시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실학자들도 유학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된 문제의식과 구체적 방안의 차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실·자료 확인 + 현실 문제 해결**이 실학의 핵심입니다.

Q08 농업 중심 개혁론은 모두 땅을 똑같이 나누자는 주장이었나요?

한 줄 답 농민의 생활과 토지 문제를 중시한 점은 같지만, 토지를 나누고 지키고 경작하는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낯선 말

토지 분배	땅을 나누어 주는 것.
영업전	이익이 농가의 최소 생계를 위해 매매하지 못하게 하자고 한 토지.
공동 소유·경작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고 함께 농사짓는 것.
생산물 분배	거둔 곡식 등 생산의 결과를 나누는 것.

공통점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토지 제도 개혁을 중시함. 방법은 서로 다름.

표 농업 중심 개혁론의 공통점과 차이

인물	대표 저서	구체적인 구상	바로잡을 오해
유형원	『반계수록』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고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마련해 줌	모든 신분에 똑같은 면적을 주자는 주장은 아님
이익	『성호사설』	생계에 필요한 최소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해 매매를 금지함	모든 토지의 거래를 전부 금지하자는 뜻은 아님
정약용	『목민심서』·『경세유표』	마을에서 토지를 함께 소유·경작하고 일한 날수(노동량)에 따라 생산물을 나눔	함께 농사짓는다고 생산물도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님

참고 『성호사설』·『목민심서』·『경세유표』와 균전론·한전론·여전론이라는 이름은 문제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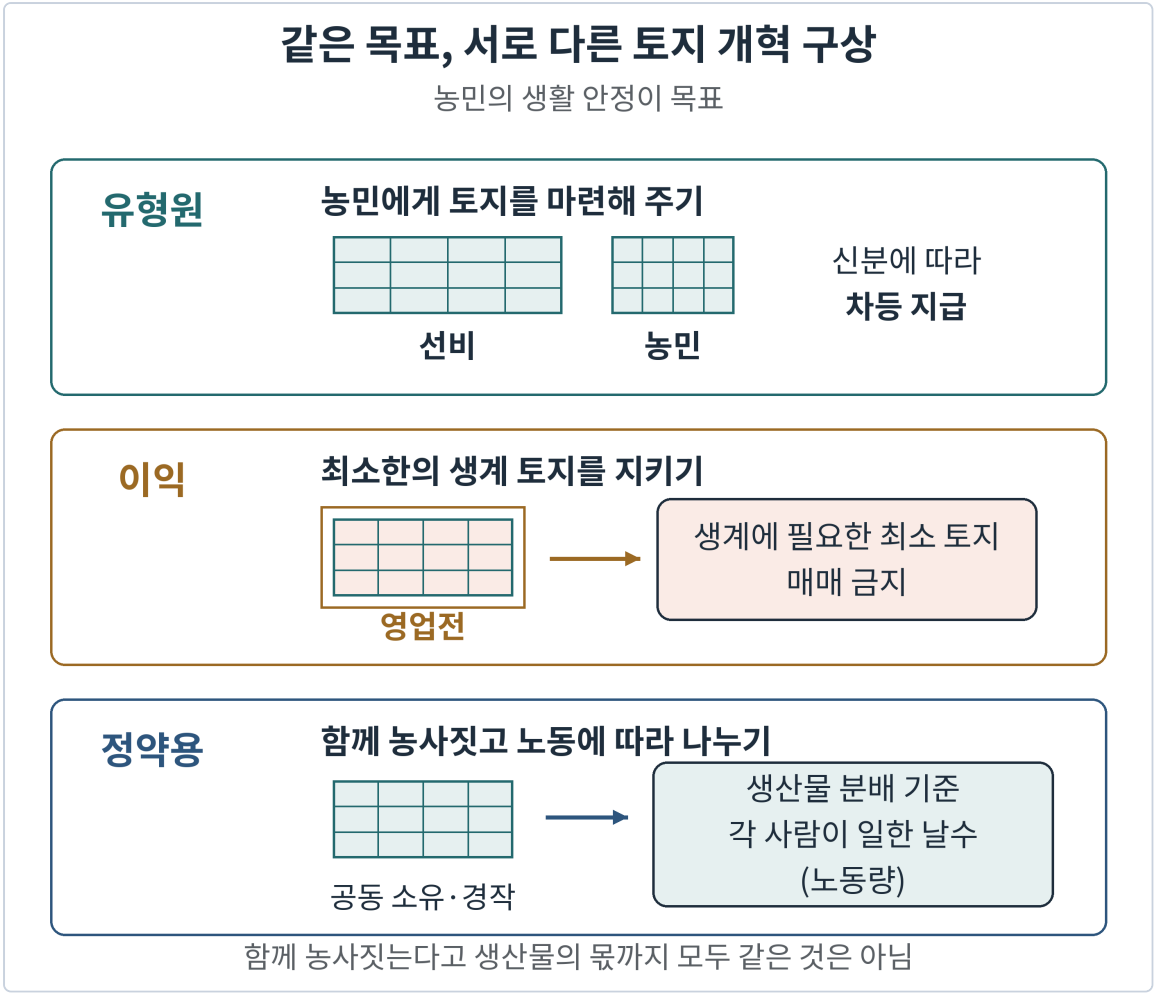


그림 8 **세 사람의 토지 개혁 구상** 유형원은 신분별 토지 지급, 이익은 최소 생계 토지 보호, 정약용은 공동 경작과 일한 날수에 따른 생산물 분배로 구별합니다.

사료 읽기 **공동 경작 뒤 어떻게 나눌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땅을 일구고, 각자가 일한 날수를 장부에 적는다. 거둔 곡식에서 세금 등을 먼저 뺀 뒤, 장부에 기록된 일한 양에 맞추어 몫을 나눈다.

— 정약용, 「전론」, 뜻을 쉽게 풂

설명 농민의 생계를 안정시키자는 목표는 같아도 해결책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유형원은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문제를, 이익은 농가가 생계의 바탕이 되는 최소한의 땅마저 잃지 않게 하는 문제를 중시했습니다.

정약용의 구상에서는 **땅을 어떻게 소유·경작하는가**와 **생산물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땅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경작하지만, 분배 기준은 각 사람이 일한 날수입니다. '공동'이라는 말 하나만 보고 모든 몫이 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형원—신분별 차등 지급 / 이익—영업전 매매 금지 / 정약용—공동 경작·일한 날수**를 한 묶음씩 기억합니다.

Q09 실학자의 개혁안이 나왔으면 나라가 그대로 시행한 것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학자가 제안한 구상과 국가가 실제 시행한 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낯선 말

제안	어떤 일을 하자고 의견을 내놓음.
시행	정한 제도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함.
개화사상	뒤에 근대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키려 한 생각.

표 주장한 것 · 시행한 것 · 영향을 준 것

자료의 표현	판단할 내용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자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이 내놓은 개혁 구상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앞에서 배운 국가의 실제 조세 제도(Ⅴ-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후대의 학문과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그 생각이 뒤의 연구·변화로 이어진 의의

설명 토지를 나누는 제도를 바꾸려면 기존 소유 관계와 권력 구조도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책에 좋은 구상이 쓰였다는 것만으로 전국의 농사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학자의 사회 개혁안은 당시 국가 정책으로 널리 실현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 성과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학은 현실 문제를 새롭게 살피게 했고 후대 학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북학파가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한 주장은 뒤의 개화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개혁안의 한계와 학문·사상의 영향은 함께 성립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정약용의 구상에 따라 전국 농민이 공동 경작을 했다	**공동 경작은 개혁안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전면 시행되지 않았으니 뒤에 아무 영향도 없었다	**후대 학문과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시험 포인트 **주장·제안 / 시행 / 영향**을 구별합니다.

Q10 북벌과 북학은 이름도 비슷한데, 청을 대하는 태도도 같았나요?

한 줄 답 북벌은 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방향이고, 북학은 청의 발달한 문물과 기술을 배우려는 방향입니다.

낯선 말

북벌	청을 공격하여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호란의 치욕을 씻으려 한 주장.
북학	청의 선진 문물을 배워 조선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생각.
북학파	청의 발달한 문물 수용과 상공업·기술 발전을 강조한 학자들.

표 같은 상대, 다른 행동

기준	북벌	북학
상대	청	청
강조한 행동	군사적으로 공격	발달한 문물과 기술을 배움
판단의 초점	호란의 치욕, 명에 대한 의리	기술·생산·유통과 생활 개선

설명 '북쪽'이라는 말이 같아도 뒤의 행동이 다릅니다. 앞에서 배운 북벌(Ⅴ-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을 떠올리면 청은 극복하거나 공격할 상대였습니다. 반면 북학을 주장한 학자들은 청을 낮추어 보기만 해서는 조선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학은 청의 모든 제도나 행동을 무조건 찬성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물건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운반하는 기술 등 조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워 활용하자는 방향이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이라는 이름에서 멈추지 말고 **공격하자 / 배우자**라는 동사를 읽습니다.

Q11 상공업 중심 개혁론은 농업을 버리자는 주장이었나요?

한 줄 답 아닙니다. 기술과 상공업·유통을 발전시켜 나라와 백성의 살림을 개선하려는 주장이었습니다.

낯선 말

상공업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과 물건을 만드는 공업을 함께 가리키는 말.
문벌	대대로 이어 온 집안의 사회적 지위. 문벌 제도는 능력보다 집안을 따지는 것.
유통	생산된 물건이 여러 사람과 지역 사이를 오가는 것.

표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대표 연결

인물	대표 저서	강조한 내용	구별할 단서
유수원	『우서』	직업의 평등, 상공업 발전	직업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
홍대용	『의산문답』	기술 혁신, 문벌 제도 폐지	가문보다 능력·기술에 주목
박지원	『열하일기』	수레·선박·화폐 사용, 유통 개선	청에서의 견문
박제가	『북학의』	청과의 교역 확대, 소비를 통한 생산 증대	소비와 생산의 관계

참고 『우서』·『의산문답』이라는 이름은 문제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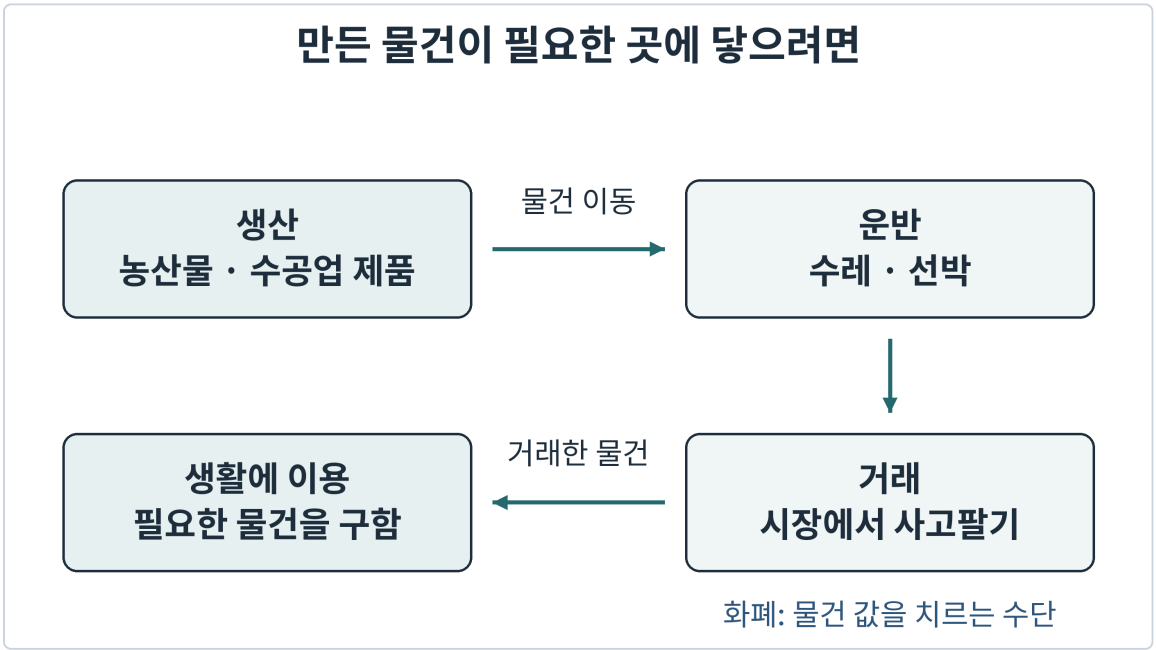


그림 9 **생산한 물건이 쓰이기까지** 물건의 생산·운반·거래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수레·선박·화폐는 이 연결을 돕습니다.

설명 농산물을 많이 거두어도 멀리 옮길 길과 운반 수단이 부족하면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생산과 유통은 서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박지원이 수레·선박을 강조한 까닭도 사람을 태우는 편리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수원과 홍대용은 직업과 가문에 따른 차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단순히 '상인이 돈을 더 벌자고 한 주장'으로만 설명하면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기술과 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함께 개선하려 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수원—직업 / 홍대용—기술·문벌 / 박지원—운송·유통 / 박제가—교역·소비**로 구별합니다.

Q12 박제가는 왜 소비가 늘어야 생산도 늘 수 있다고 보았나요?

한 줄 답 **물건을 사서 쓰는 수요가 있어야 만드는 일과 기술도 계속 이어지고 발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소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서 쓰는 것.
생산	생활에 필요한 물건 등을 만들어 내는 것.
수요	물건을 사거나 쓰려는 필요.

표 **박제가의 주장을 읽는 기준**

핵심 주장	연결되는 이유
소비를 통해 생산을 늘리자	수요가 생산과 기술 유지·발전을 자극할 수 있음
청과의 교역을 넓히자	발달한 문물과 물자를 접하고 경제 활동을 넓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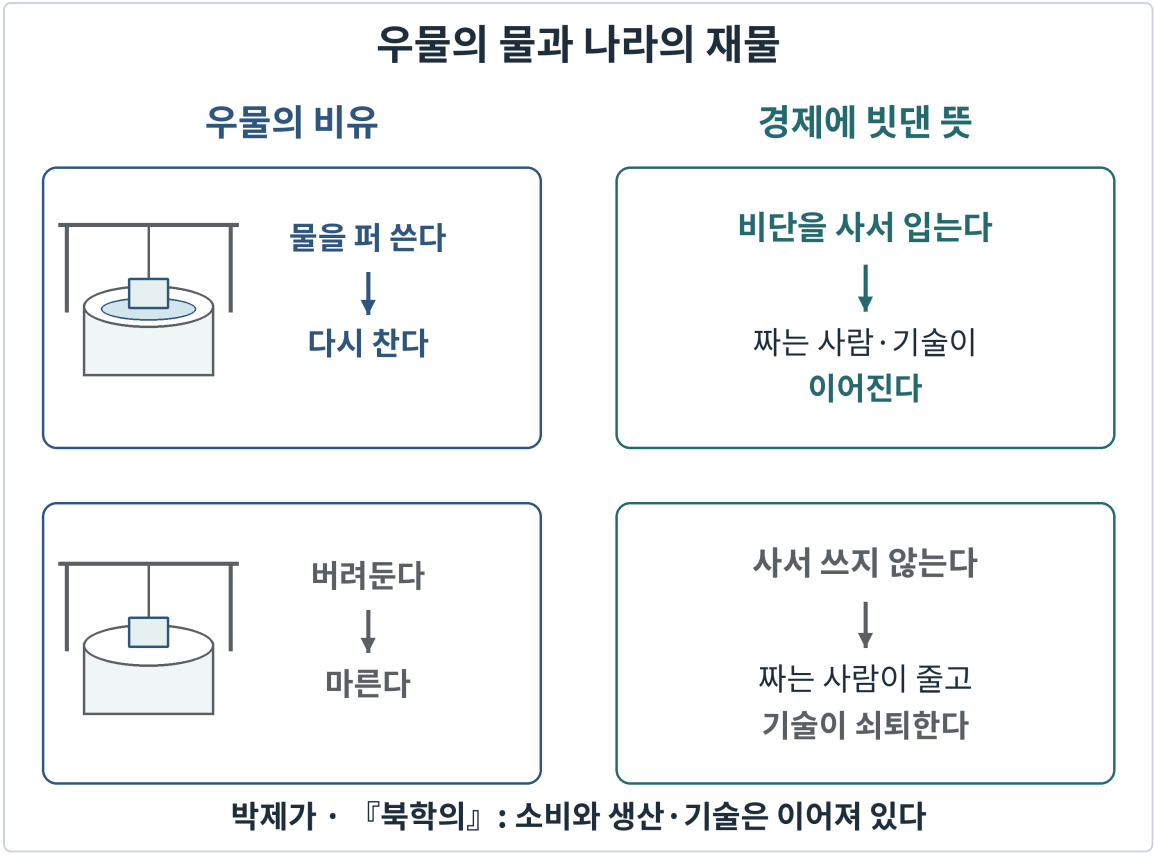


그림 10 **박제가의 우물 비유** 우물에서 물을 퍼 쓰는 일과 물건을 사서 쓰는 일을 나란히 연결해 봅니다.

사료 읽기 **우물과 비단**

재물은 우물의 물처럼 써야 다시 채워진다. 우물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물이 마르듯이, 비단옷을 아무도 사 입지 않으면 비단 짜는 사람과 길쌈 기술도 줄어든다.

— 박제가, 『북학의』, 뜻을 쉽게 풂

설명 박제가가 말한 우물은 재물을 비유한 것입니다. 비단을 사서 입는 수요가 있어야 비단을 짜는 사람이 일을 이어 가고 기술도 전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제가는 재물을 쓰지 않고 쌓아 두는 것만을 좋은 경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소비·생산·교역이 서로 이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비를 위한 수요 → 생산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박제가·『북학의』와 연결합니다.

3부 우리의 과거와 삶의 터전을 조사하다

Q13 국학은 나라가 세운 학교를 말하나요?

한 줄 답 국학은 우리의 역사·지리·언어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낯선 말

국학	자기 나라의 역사·지리·언어·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
남북국	신라와 발해가 각각 남쪽과 북쪽에 있었던 시대의 두 나라를 함께 이르는 말.
체계적	일정한 기준과 질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 것.
언어 연구	말과 글의 소리·구조·사용 등을 살피는 연구.

표 국학의 분야와 대표 성과

분야	인물·책	연구의 초점
역사	안정복·『동사강목』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역사	유득공·『발해고』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인식,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파악
지리	이중환·『택리지』	각 지방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지리	정상기·『동국지도』, 김정호·『대동여지도』	우리 국토의 지도 제작
언어	신경준·『훈민정음운해』, 유희·『언문지』	우리말과 글 연구



그림 11 **국학은 무엇을 연구했을까?** 우리의 과거, 우리 땅, 우리말과 글을 연구한 인물과 책을 연결해 봅니다.

사료 읽기 **발해도 우리 역사**

신라가 남쪽에, 발해가 북쪽에 있었으니 두 나라를 함께 남북국으로 보아야 한다. 고려가 발해의 역사까지 정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 유득공, 『발해고』 서문, 뜻을 쉽게 풂

설명 외국의 문물을 배우려는 관심과 우리의 전통·현실을 연구하려는 관심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학자들은 조선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 역사와 지역, 언어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발해고』에서는 연구 대상과 의미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옛 나라 하나를 소개한 책이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발해를 우리 역사에 포함해 이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단원에서 배운 학교 이름 '국학'과 여기의 학문 분야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안정복—동사강목 / 유득공—발해고**를 구별합니다. 『훈민정음운해』·『언문지』가 보이면 지도 제작이 아니라 언어 연구입니다.

Q14 『택리지』는 산과 강의 이름만 적은 책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자연환경과 함께 인물·풍속·물산 등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을 살핀 지리서입니다.

낯선 말

지리서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책.
풍속	한 사회에서 오래 이어져 온 생활 방식과 습관.
물산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인문 환경	사람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생활·사회·문화적 조건.

표 지역을 살피는 두 눈

살펴볼 조건	살펴본 내용	『택리지』와 연결할 점
자연환경	물을 구하기 쉬운가? 땅과 지형은 어떠한가?	자연 조건 조사
사람의 생활	어떤 물품이 생산되는가? 풍속은 어떠한가?	물산·풍속 등 조사

설명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인지 판단하려면 경치가 아름다운지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물과 땅의 조건, 생업을 유지할 가능성, 지역 사람들의 생활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중환의 『택리지』는 지역을 사람의 삶과 연결해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중환—택리지—자연환경·풍속·물산**입니다. 제목만 보고 지도를 그린 책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15 『대동여지도』는 『곤여만국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우리 국토의 지리 정보를 자세히 나타낸 전국 지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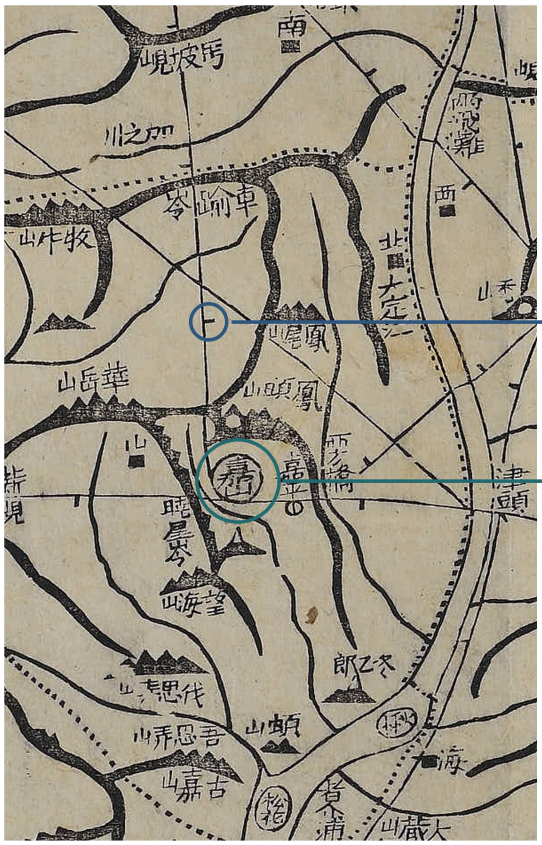
낯선 말

축척	실제 거리를 지도에서 줄여 나타낸 비율.
백리척	실제 거리 100리를 지도에서 1척(자)으로 줄여 나타내는 방법.
범례	지도에서 선이나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 주는 설명.
절첩식	접었다 펼 수 있게 만든 형식.

표 지도와 지리서를 구별하기

자료	만든 사람	범위·특징
『곤여만국전도』	마테오 리치	세계 지도, 세계 인식의 확대
『택리지』	이중환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을 설명한 지리서
『동국지도』	정상기	백리척을 활용한 전국 지도
『대동여지도』	김정호	산줄기·하천·도로와 여러 정보를 정리, 기호·10리마다 눈금(점)·목판 인쇄·접는 형식

실제 지도에서 거리 표시와 기호 찾기



김정호 · 『대동여지도』 · 부분 확대

그림 12 **실제 지도에서 거리 표시와 기호 찾기** 김정호, 『대동여지도』의 일부. 도로에 붙은 눈금과 마을 등의 기호를 찾아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부분 확대·설명 표기.

설명 『대동여지도』에는 도로에 10리마다 눈금(점)을 표시하여 거리를 읽을 수 있게 했고, 역참·마을 등의 정보를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목판에 새겨 찍었으므로 같은 지도를 여러 장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도 전체가 크더라도 각 첩을 접으면 필요한 부분을 펼쳐 보거나 가지고 다니기 편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편리한 이용'이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김정호의 성과는 앞선 지도와 지리 연구가 쌓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도 제작을 혼자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만들어 낸 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동국지도』의 정상기와 『대동여지도』의 김정호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김정호—대동여지도—목판 인쇄·기호·10리마다 눈금(점)·접어 휴대**를 연결합니다.

4부 현실과 우리 산천을 새롭게 표현하다

Q16 한문학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한 줄 답 정약용과 박지원 등은 한시와 한문 소설을 통해 수탈과 양반층의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낯선 말

한문학	한문으로 쓴 시·소설 등의 문학.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않고 부당한 일.
풍자	대상의 잘못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어 비판하는 표현.
위선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른 태도.

표 누가 무엇을 비판했나

인물·작품	표현한 문제	읽을 때의 기준
정약용의 한시	삼정의 문란과 백성의 고통 등	무엇이 백성을 힘들게 하는가?
박지원의 「양반전」·「허생전」	양반층의 위선·무능과 사회의 모순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다른가?

사료 읽기 **양반의 겉모습과 특권**

양반 신분을 사려는 부자에게 양반이 지켜야 할 까다로운 격식을 적은 문서를 읽어 준다. 이어서 이웃의 소를 제멋대로 끌어다 자기 밭부터 갈고, 마을 사람을 데려다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는 내용을 듣자, 부자는 "나를 도둑으로 만들 셈이나"며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 박지원, 「양반전」의 장면을 요약, 뜻을 쉽게 풂

설명 한문은 당시 양반층이 주로 사용했지만, 한문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질서를 칭찬하는 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사회의 부당함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언어와 작품의 주장은 다른 기준입니다.

박지원의 소설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양반 사회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웃음이 생기는 장면도 단순히 재미만 주려는 것인지, 잘못을 비판하려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약용—삼정의 문란을 드러낸 한시 / 박지원—양반 사회를 풍자한 한문 소설**로 묶습니다.

Q17 시사는 요즘의 뉴스나 시사 상식을 뜻하나요?

한 줄 답 시사(詩社)는 함께 시를 짓고 감상하던 문학 모임을 뜻합니다.

낯선 말

시사(詩社)	시를 짓고 감상하며 문학 활동을 하던 모임.
중인	양반 아래에서 통역·의학 등의 전문 기술이나 관청 실무를 맡던 계층.
역관	통역을 맡은 관리.
서리	관청에서 문서 처리 등 실무를 맡던 사람.
시집	여러 편의 시를 모아 엮은 책.

표 문학 활동의 참여가 넓어지다

배경	참여한 사람들	활동
경제적 성장, 문학 활동의 확대	역관·서리 등 중인, 부유한 상공업자·농민 등	작품 창작·감상
중인층의 활발한 활동	시사를 조직한 중인들	함께 시를 짓고, 시를 모아 시집 간행

설명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학식이 생기면서 양반 밖의 계층에서도 창작과 감상이 활발해졌습니다. 중인들은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작품을 읽고 문학 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여기서 시사는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시험 포인트 **중인·모임·시 창작·시집 → 시사(詩社)**입니다. ‘시사 문제’라는 일상어와 구별합니다.

Q18 진경 산수화는 실제 풍경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그림인가요?

한 줄 답 실제 우리 산천을 바탕으로 그린 산수화이지만, 화가의 관찰과 인상·표현 방식이 함께 담겼습니다.

낯선 말

산수화	산과 물 등 자연 풍경을 그린 그림.
진경 산수화	실제 우리 산천을 관찰해 특징을 담은 산수화.
화풍	그림에 나타나는 표현 방식과 분위기.
명승지	경치가 뛰어나 이름난 곳.

표 정선의 작품을 구별하는 단서

작품	실제 대상	기억할 특징
「금강전도」	금강산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와 지형을 화가의 시각으로 구성
「인왕제색도」	서울의 인왕산	비가 갠 뒤 산의 바위와 안개 등을 표현
두 작품의 공통점	우리 산천	정선의 진경 산수화



그림 13 우리 산천을 관찰하는 화가 실제 산천을 살피며 그 특징을 그림에 담는 모습을 봅니다. (상상도)



그림 14 **정선의 인왕제색도** 정선, 「인왕제색도」. 비가 갠 뒤 인왕산의 바위와 안개를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그림 15 **정선의 금강전도** 정선, 「금강전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구도와 여러 봉우리의 표현을 봅니다.
리움미술관 소장. 이미지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저작권 만료).

설명 조선 후기에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선은 실제 산천을 살피고 그 특징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그림 양식을 본뜨는 데서 벗어나 우리 자연을 적극적인 그림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실제 장소를 그렸다'와 '눈앞의 장면을 기계적으로 복사했다'는 다릅니다. 화가는 무엇을 강조할지, 어디에서 바라본 듯 구성할지, 먹의 진하고 옅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그래서 작품에는 실제 대상과 화가의 해석이 함께 담깁니다.

> **시험 포인트** **우리 산천·정선·금강산·인왕산 → 진경 산수화**입니다. 실제 장소를 그린다는 점과 화가의 표현이 담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Q19 명암법과 원근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 **한 줄 답** **명암법은 밝고 어두움으로 입체감을, 원근법은 가깝고 먼 관계로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낯선 말

명암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
입체감	평면의 그림에서 두께와 부피가 느껴지는 효과.
원근	가까움과 멂.

표 표현 방법을 판별하는 단서

방법	그림에서 확인할 단서	연결할 효과
명암법	같은 사물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부피·입체감
원근법	가까운 것과 먼 것의 크기·배치 차이 등	거리·공간의 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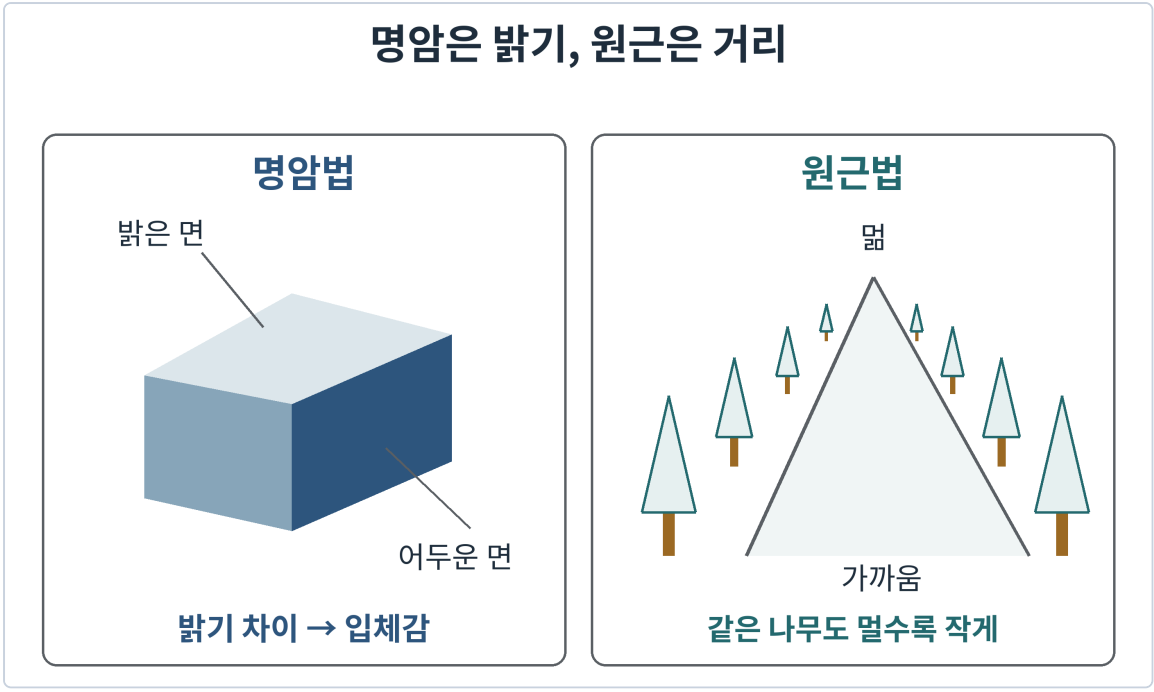


그림 16 **밝기와 거리로 표현하기** 왼쪽은 밝고 어두운 면으로 입체감을, 오른쪽은 멀수록 작아 보이는 나무로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그림 17 **강세황의 영통동구도** 강세황, 「영통동구도」(『송도기행첩』 중). 바위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찾아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설명 청을 다녀온 사신들을 통해 서양 그림과 화법이 소개되었습니다. 강세황 등은 이런 방법을 동양화와 접목해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강세황의 「영통동구도」는 바위에 진하고 옅은 색을 사용한 표현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밝고 어두움 → 명암 / 가깝고 멂 → 원근**, 인물은 강세황과 연결합니다.

Q20 김정희의 추사체는 어떤 글씨체인가요?

한 줄 답 옛 글씨와 여러 필체를 연구해 발전시킨 독창적인 서예의 글씨체입니다.

낯선 말

서예	붓글씨로 글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
필체	글씨를 쓰는 방식과 그 특징.
비문	비석에 새긴 글.
추사	김정희의 호. 추사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나옴.

표 김정희를 연결할 분야

인물	연구의 바탕	대표 성과	구별할 것
김정희	우리나라·중국의 옛 비문과 여러 필체	추사체	새 문자 창제가 아니라 서예의 표현 방식



그림 18 김정희의 글씨 김정희, 「묵소거사자찬」. 획의 굵기와 방향, 글자 사이의 간격을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설명 같은 글자도 획의 굵기와 방향, 간격과 배치에 따라 다른 인상을 줍니다. 김정희는 옛 글씨를 폭넓게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글씨체를 발전시켰습니다. ‘독창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갑자기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글을 창제한 일과 추사체를 발전시킨 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문자를 만든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글씨를 예술적으로 쓰는 방식의 발전입니다.

시험 포인트 **김정희—추사체—서예**입니다. 정선의 진경 산수화와 분야부터 나눕니다.

Q21 청화 백자는 푸른색 바탕의 청자와 같은 것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청화 백자는 흰 바탕에 푸른색 무늬를 넣은 백자입니다.

낯선 말

백자	흰 빛을 띠는 자기.
청화 백자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무늬를 그린 백자.
문방구	붓·먹·종이·벼루처럼 글을 쓰고 공부하는 데 쓰는 물건.

표 이름보다 바탕과 무늬를 먼저 보기

구별 기준	청화 백자의 특징
바탕	흰색
무늬	푸른색의 꽃·새·산수 등
쓰임	문방구와 여러 생활용품
조선 후기의 변화	백자가 민간에도 널리 사용되고 청화 백자가 유행



그림 19 **백자 청화 국화 새무늬 항아리** 조선의 「백자 청화 국화 새무늬 항아리」(작자 미상). 흰 바탕 위의 푸른 무늬를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설명 이름에 '청'이 들어 있다고 그릇 전체가 푸른 바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먼저 바탕과 무늬를 나누어 보면 청화 백자의 특징이 분명해집니다. 흰 표면 위에 푸른 무늬를 넣었다는 조합이 핵심입니다.

이런 자기는 감상만 하는 물건이 아니라 글을 쓰는 도구나 생활용품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의 변화는 그림과 글씨뿐 아니라 생활 속 물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 **시험 포인트** **흰 바탕 + 푸른 무늬 → 청화 백자**입니다. 이름 한 글자만 보고 청자와 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Q22 조선 후기에는 어떤 건축물을 지었나요?

한 줄 답 큰 불교 건축물과 수원 화성을 지었고, 19세기에는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낯선 말

축조	성이나 건축물 등을 쌓아 만드는 일.
중건	무너지거나 불탄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
목탑	나무로 만든 탑.

표 조선 후기 건축의 대표 사례

종류	사례	연결할 내용
불교 건축	김제 금산사 미륵전 · 구례 화엄사 각황전 · 보은 법주사 팔상전	규모가 큰 불교 건축물. 팔상전은 5층 목탑
성곽 건축	정조 때 수원 화성	당시 과학 기술 활용, 정약용의 거중기
궁궐 중건	19세기 경복궁	왜란 때 불탄 궁궐을 다시 세움

설명 불교 사찰에서는 큰 건물을 다시 세우거나 정비했습니다. 정조 때에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원 화성을 축조했고, 19세기에는 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은 목적과 시기를 함께 보면 불교 건축·성곽·궁궐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교 건축—미륵전·각황전·팔상전 / 정조—수원 화성 / 19세기—경복궁 중건**을 연결합니다.

Q23 수원 화성 공사에는 어떤 기술이 쓰였나요?

한 줄 답 정약용이 서양 기술서를 참고해 고안한 거중기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낯선 말

거중기	도르래 등을 이용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치.
도르래	바퀴에 줄을 걸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힘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
의궤	나라의 큰 행사를 어떻게 치렀는지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

표 수원 화성 공사에 활용한 기술

인물·시기	참고한 지식	장치와 쓰임
정조 때 정약용	서양 과학 기술서	거중기를 고안하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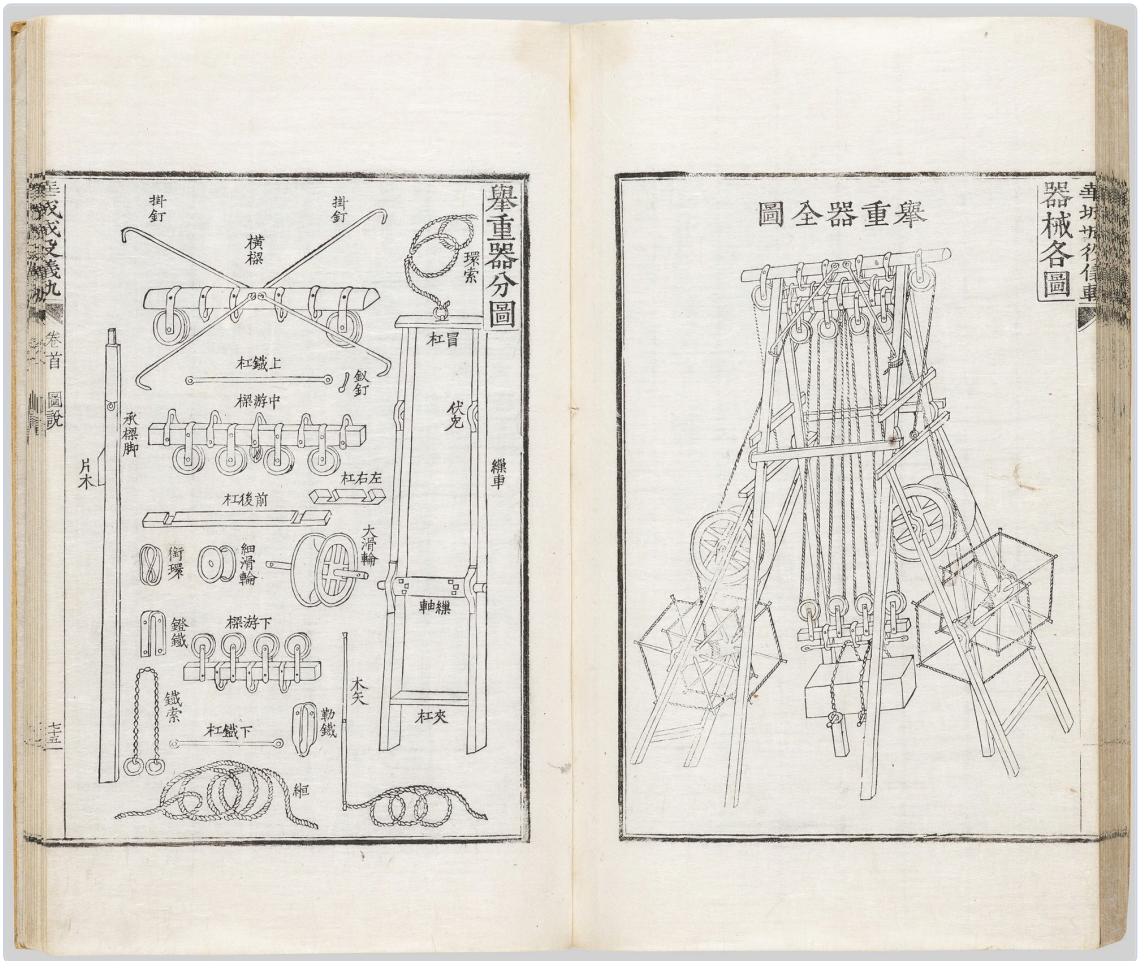


그림 20 화성성역의궤의 거중기 『화성성역의궤』의 거중기 전도와 부분 그림. 틀에 매단 도르래와 줄, 돌을 들어 올리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제공(공공누리 제1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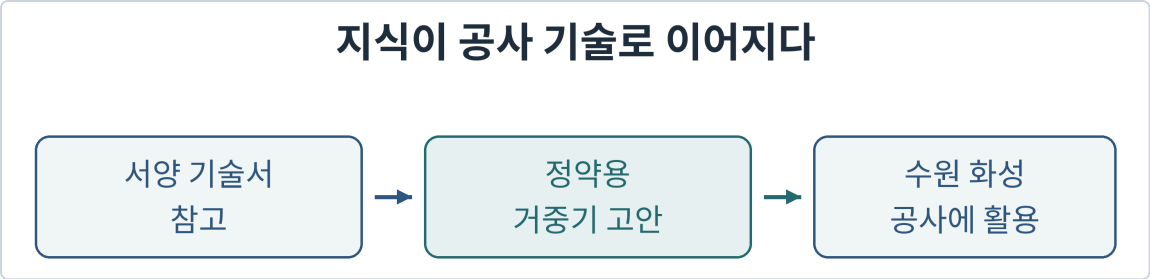


그림 21 **지식이 공사 기술로 이어지다** 서양 기술서의 지식이 정약용의 장치 고안과 수원 화성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설명 무거운 돌을 옮기고 쌓는 일은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정약용은 서양 과학 기술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고안했고, 이 장치는 공사에 드는 수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지 공동 경작안은 제안이었지만, 거중기는 공사에 실제로 활용한 기술입니다.

앞에서 배운 자격루·앙부일구·측우기(Ⅳ-3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는 각각 시간이나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거중기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치이므로 쓰임으로 구별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조—수원 화성—정약용—거중기—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림**으로 연결합니다.

정리 제목 질문에 답하기

학자들은 외국의 문물과 조선의 현실을 함께 살피며 생활을 개선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역사·지리·언어를 연구하고, 사회의 모순과 실제 산천을 예술로 표현하려는 관심도 커졌습니다.

여러 번 나오는 인물 묶어 보기

표 같은 인물, 다른 활동

인물	나오는 곳	내용
정약용	Q08 · Q16 · Q23	토지 공동 소유·경작 구상 / 삼정의 문란을 고발한 한시 / 거중기
홍대용	Q04 · Q05 · Q11	연경에서 서양 선교사와 교류 / 지전설(지구 자전) / 기술 혁신·문벌 제도 폐지
박지원	Q11 · Q16	『열하일기』, 수레·선박·화폐 / 「양반전」·「허생전」

세기 단위로 앞뒤 살펴보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서양 문물 전래(17세기 초)	이익	김정희의 추사체
『동의보감』 간행	정선의 진경 산수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유형원	홍대용·박지원·박제가	경복궁 중건
	정조 때 수원 화성과 거중기(정약용)	

그림 22 **언제의 일인가** 누가, 무엇이 어느 세기의 일인지 앞뒤만 잡아 봅니다.

시험 직전, 단서를 짝지어 기억하기

표 자료의 단서와 구별 기준

▣ 1부 · 교류와 새 지식

자료에서 찾을 단서	연결할 핵심	헷갈리지 않을 점
일본·쇼군·국서	통신사	문물은 서로 오감
청·연경·서양 선교사	연행사	청에서 조선에 온 칙사와 구별
지도·천리경·천주교	서학	학문 연구와 신앙 수용은 다름
마테오 리치	곤여만국전도	세계 지도
김육	시헌력	달력·역법
홍대용	지전설(지구 자전)	지구가 스스로 도는 운동

▣ 2부 · 실학의 개혁안

자료에서 찾을 단서	연결할 핵심	헷갈리지 않을 점
신분별 토지 지급	유형원	모든 신분에 같은 면적이 아님
영업전 매매 금지	이익	최소 생계 토지 보호
공동 경작·일한 날수	정약용	공동 소유와 똑같은 분배는 다름
청을 공격	북벌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방향
청의 발달한 문물을 배움	북학	기술·생산·유통과 생활 개선
수레·선박·화폐	박지원·열하일기	물자의 운반과 거래
우물·비단·소비와 생산	박제가·북학의	수요가 생산과 기술을 이어 줌

▣ 3부 · 국학

자료에서 찾을 단서	연결할 핵심	헷갈리지 않을 점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안정복·동사강목	역사 연구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파악	유득공·발해고	발해도 우리 역사로 인식
지역의 자연환경·풍속·물산	이중환·택리지	사람이 사는 조건을 살핀 지리서
백리척	정상기·동국지도	전국 지도
목판 인쇄·기호·10리마다 눈금(점)·절첩식	김정호·대동여지도	같은 지도를 여러 장 제작, 접어 휴대
훈민정음운해·언문지	신경준·유희	우리말과 글 연구

▣ 4부 · 예술과 건축

자료에서 찾을 단서	연결할 핵심	헷갈리지 않을 점
양반의 위선·무능 풍자	박지원의 한문 소설	한문으로도 현실 비판
실제 우리 산천	정선의 진경 산수화	금강전도·인왕제색도
밝고 어두운 부분, 가깝고 먼 관계	명암법·원근법	강세황의 서양 화법 수용
김정희	추사체	서예의 글씨체
흰 바탕·푸른 무늬	청화 백자	공예·생활용품
수원 화성·무거운 돌	정약용의 거중기	정조 때 공사에 활용

확인 확인 문제

선택형 20문항 · 단답형 2문항 · 짧은 서술형 2문항

01

다음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선 국왕의 문서를 가지고 일본에 갔다. 일행에는 외교 담당자 외에 학자와 의원,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었다.

① 청의 황제가 조선에 보낸 칙사이다.
② 청의 수도에 가서 선진 문물과 서양 학문을 접하였다.
③ 통신사이며, 외교 업무와 함께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④ 연행사이며, 연경에서 서양 기구를 조사하였다.
⑤ 조선은 일본에 아무런 문화도 전하지 못하였다.

02

다음 메모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청의 수도에서 중국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천주당에서는 서양 출신 인물에게 천문 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무역에 참여한 상인들도 만났다.

〈 보기 〉

ㄱ. 청에서 중국과 서양의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ㄴ. 메모의 작성자는 유럽을 방문하였다.
ㄷ. 외교 사절의 왕래와 경제적 교류가 연결되었다.
ㄹ. 메모의 작성자가 천주교 신자라는 점이 확인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3

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주교뿐 아니라 서양 과학 지식도 포함한다.
② 중국을 오가는 사신 등을 통해 전해졌다.
③ 세계 지도와 천리경 등도 서양 문물의 사례이다.
④ 기존의 세계관을 새롭게 살피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⑤ 서학을 연구했다면 모두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04

다음 두 통로를 구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소현 세자가 청에서 아담 샬과 교류하였다.
(나) 벨테브레이가 배를 타고 가던 중 표류하여 조선에 왔다.

① (가)는 조선인이 유럽에 직접 간 사례이다.
② (가)는 중국에서의 만남, (나)는 조선에 온 표류민과의 접촉 사례이다.
③ (나)의 인물은 조선이 일본에 보낸 통신사이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조선 정부가 서양에 보낸 사절의 활동이다.
⑤ (나)의 인물은 마테오 리치라는 이름으로 세계 지도를 제작하였다.

05

㉠~㉢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마테오 리치가 제작해 조선에도 전해진 세계 지도
㉡ 김육 등이 도입에 기여한 역법
㉢ 홍대용의 지전설이 설명하는 지구의 운동

선택	㉠	㉡	㉢
①	대동여지도	시헌력	자전
②	곤여만국전도	대동법	공전
③	동국지도	시헌력	공전
④	곤여만국전도	시헌력	자전
⑤	대동여지도	균역법	자전

06

전시 설명 카드 중 인물과 연구 성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허준 — 농가집성에서 모내기법을 소개하였다.
② 서유구 — 동의보감을 간행하여 의학을 체계화하였다.
③ 신속 — 지전설(지구 자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④ 김육 —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의학을 설명하였다.
⑤ 이제마 —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07

다음 활동들을 묶는 학문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민의 생활을 조사하고 토지 제도의 개선을 제안한다. 운반 기술과 시장 거래를 살펴 생산과 유통을 늘릴 방법을 찾는다.

① 성리학의 명분과 예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다.
② 사실과 자료를 살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의 경향이다.
③ 모든 참여자가 하나의 토지 제도만을 주장하였다.
④ 외국의 학문을 그대로 외우고 조선의 현실은 살피지 않았다.
⑤ 국가가 만든 개혁안을 전국에 시행한 결과만을 기록한 것이다.

08

다음 개혁안의 제안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고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마련해 주자.
> (나) 농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팔지 못하도록 보호하자.
> (다) 마을에서 함께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짓되, 일한 날수를 기준으로 생산물을 나누자.

선택	(가)	(나)	(다)
①	이익	유형원	정약용
②	정약용	이익	유형원
③	유형원	정약용	이익
④	유형원	이익	정약용
⑤	이익	정약용	유형원

09

확인 08의 세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민의 생활과 토지 문제를 중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다.
② 세 사람 모두 신분과 무관하게 똑같은 면적의 토지를 주자고 하였다.
③ 이익은 모든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자고 주장하였다.
④ 정약용은 일한 날수와 관계없이 모든 생산물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였다.
⑤ 세 주장이 나오자 조선의 모든 농민이 공동 경작을 시작하였다.

10

청을 대하는 두 주장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가) 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호란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
> (나) 청의 발달한 기술과 문물을 배워 우리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① (가)와 (나)는 모두 북벌이다.
② (가)는 북학이고, (나)는 북벌이다.
③ (가)는 북벌이고, (나)는 북학이다.
④ (나)는 청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뜻이다.
⑤ (가)는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

한 인물에 관한 자료를 모았다. 이 인물의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 청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열하일기』를 썼다. 글을 통해 양반 사회의 모순도 비판하였다.

① 농가의 최소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하고 매매를 금지하자.
②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자.
③ 각 지역의 인물과 풍속을 『택리지』에 정리하자.
④ 수레·선박·화폐를 활용해 물자의 유통을 활발하게 하자.
⑤ 『언문지』를 통해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자.

12

다음 주장을 한 인물과 그 주장의 취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물은 우물의 물처럼 써야 다시 채워진다. 우물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물이 마르듯이, 비단옷을 아무도 사 입지 않으면 비단 짜는 사람과 길쌈 기술도 줄어든다.

① 유형원 — 신분에 따른 토지 지급
② 이익 — 영업전의 매매 금지
③ 김정희 — 옛 비문을 조사하여 서예 발전
④ 박지원 —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 물자의 유통을 늘림
⑤ 박제가 — 소비를 통해 생산과 기술의 발달을 자극

13

실학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토지 개혁안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에서 모두 시행되었다.
② 개혁안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후대의 학문과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③ 개혁안이 전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연구 성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④ 모든 실학자는 같은 시기에 같은 직책으로 함께 활동하였다.
⑤ 북학파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사상에 반대되는 영향만 주었다.

14

자료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 (가) 신라가 남쪽에, 발해가 북쪽에 있었으니 두 나라를 함께 남북국으로 보아야 한다. 고려가 발해의 역사까지 정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
> (나) 신경준과 유희가 우리말과 글을 연구한 책들

① (가) 지도 제작 / (나) 의학
② (가) 서예 / (나) 건축
③ (가) 남북국의 역사 인식 / (나) 언어 연구
④ (가) 농업 / (나) 천문학
⑤ (가) 의학 / (나) 지도 제작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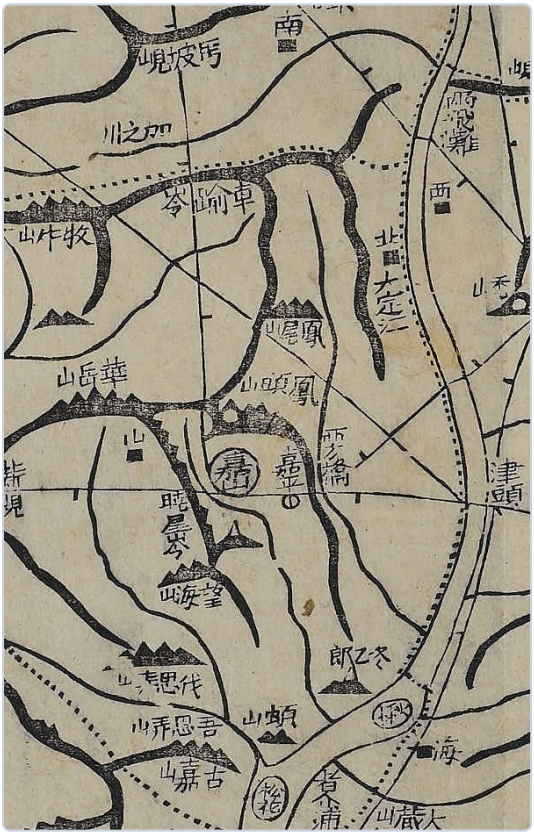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책과 저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한 지역을 소개하면서 땅과 물의 조건뿐 아니라 인물·풍속·물산도 함께 살폈다. 지역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리서이다.

① 이중환 — 『택리지』
② 안정복 — 『동사강목』
③ 유득공 — 『발해고』
④ 정상기 — 『동국지도』
⑤ 김정호 — 『대동여지도』

16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제공: 국립중앙박물관(공공누리 제1유형).

① 정상기가 백리척을 처음 사용하여 만든 『동국지도』이다.
② 마테오 리치가 세계 여러 지역을 담아 제작한 지도이다.
③ 이중환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속을 글로 정리한 지리서이다.
④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로, 목판 인쇄·기호·도로의 10리 표시·접어 휴대하는 형식이 특징이다.
⑤ 홍대용이 지전설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천문도이다.

17

한문학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문으로 쓴 작품은 언제나 양반의 행동을 칭찬하였다.
② 박지원은 「양반전」 등에서 양반층의 위선과 무능을 풍자하였다.
③ 정약용은 한시에서 삼정의 문란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④ 시사는 향촌에 성리학 질서를 퍼뜨리기 위한 자치 규약이었다.
⑤ 중인층의 문학 활동은 조선 후기에 완전히 중단되었다.

18

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자료 제공: 국립중앙박물관(공공누리 제1유형).

① (가)는 김정희, (나)는 정선이 그린 작품이다.
② (가)는 금강산의 봉우리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표현하였다.
③ (나)는 바위의 밝고 어두운 차이를 표현하지 않았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중국의 이상적인 산천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⑤ (가)는 정선의 진경 산수화, (나)는 강세황이 바위의 명암을 표현한 그림이다.

19

그림과 같은 특징의 자기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푸른 무늬가 있으므로 바탕도 푸른색인 청자이다.
② 흰 바탕에 푸른 무늬를 넣은 분청사기이다.
③ 흰 바탕에 푸른 무늬를 넣은 청화 백자이다.
④ 흰 바탕보다 푸른색이 그릇 표면 전체를 덮는 것이 특징이다.
⑤ 조선 후기에는 왕실에서만 사용하여 민간 생활용품과는 관련이 없었다.

20

다음 답사 메모 가운데 고쳐야 할 내용은?

① 거중기는 정조 때 김정호가 고안하였다.
②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5층 목탑이다.
③ 수원 화성은 정조 때 축조되었다.
④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쓰였다.
⑤ 19세기에는 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21 단답형

설명에 해당하는 말을 각각 쓰세요.

(1) 옛 비문과 여러 필체를 연구한 김정희의 독창적인 글씨체: _____

(2) 중인 등이 시를 짓고 감상하기 위해 조직한 문학 모임: _____

(3) 실제 우리 산천을 관찰해 그린, 정선의 작품과 연결되는 산수화: _____

22 단답형

㉠~㉢에 들어갈 인물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1) 『동의보감』 — ㉠ _____

(2) 『동국지도』·백리척 — ㉡ _____

(3) 『대동여지도』·기호와 거리 표시 — ㉢ _____

23 짧은 서술형

다음 설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한 문장으로 쓰세요. 생산물을 나누는 기준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정약용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짓고, 일한 날수와 관계없이 생산물을 똑같이 나누자고 했어."

답 _____

_____

24 짧은 서술형

다음 주장에 대해, 통신사를 통한 교류의 두 방향이 모두 드러나도록 두 문장 이내로 고쳐 쓰세요. 양쪽에서 오간 내용은 각각 한 가지 이상 포함합니다.

> "통신사는 조선 문화를 일본에 전하기만 했고, 조선으로 가져온 지식이나 문물은 없었어."

답 _____

_____

정답 정답과 해설

정답 한눈에 보기

문항	01	02	03	04	05
정답	③	②	⑤	②	④

문항	06	07	08	09	10
정답	⑤	②	④	①	③

문항	11	12	13	14	15
정답	④	⑤	②	③	①

문항	16	17	18	19	20
정답	④	②	⑤	③	①

문항	정답
21	(1) 추사체 (2) 시사(詩社) (3) 진경 산수화
22	(1) 허준 (2) 정상기 (3) 김정호
23	정약용은 마을에서 토지를 함께 소유·경작하고 일한 날수에 따라 생산물을 나누자고 하였다.
24	조선의 성리학·의학·그림 등이 일본에 전해졌고, 조선도 일본의 학문이나 고구마 같은 문물을 받아들였다.

선택형 해설

01 ③ 일본에 국서를 전달한 조선의 사절단은 통신사입니다. ① 칙사는 청에서 조선에 보낸 사절입니다. ② 청에 가서 이러한 활동을 한 사절은 연행사입니다. ④ 연행사는 청에 갔습니다. ⑤ 조선의 성리학·의학·그림 등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단서 일본·국서·여러 분야의 수행원 → 통신사.

02 ② ㄱ·ㄷ이 옳습니다. 메모의 장소는 청의 수도이며 그곳에서 중국·서양 지식을 접하고 무역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ㄴ 서양 출신 인물을 만났다고 유럽에 간 것은 아닙니다. ㄹ 천문 기구의 설명을 들은 사실만으로 신앙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이나 ㄹ이 들어간 ①·③·④·⑤는 틀립니다.

단서 만난 사람의 출신과 실제 방문 장소를 구별.

03 ⑤ 서학 연구와 천주교 신앙 수용은 같지 않습니다. ① 서학에는 종교와 과학 지식이 포함됩니다. ② 사신의 왕래는 유입 통로였습니다. ③ 지도·망원경도 문물의 사례입니다. ④ 새로운 지도와 천문 지식은 세계관을 넓히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서 부정 발문을 먼저 표시하고 '모두'라는 단정을 점검.

04 ② (가)는 중국에서의 만남, (나)는 조선으로 온 표류민입니다. ① 청에서 만났습니다. ③·④ 표류민을 조선의 파견 사절로 볼 수 없습니다. ⑤ 벨테브레이는 박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마테오 리치와 다른 인물입니다.

단서 어디서·어떤 경로로 접촉했는가.

05 ④ 『곤여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의 세계 지도, 시헌력은 역법, 홍대용은 지전설(지구 자전)과 연결됩니다. ①·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전국 지도입니다. ② 대동법은 공납을 개편한 제도이고 공전은 이 자료의 운동이 아닙니다. ③ 『동국지도』는 정상기의 지도이며 자전과 공전도 구별해야 합니다.

단서 세계 지도 / 달력 / 지구 자체의 운동.

06 ⑤ 이제마는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 사상 의학을 확립했습니다. ① 『농가집성』은 신속입니다. ② 『동의보감』은 허준이며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와 연결됩니다. ③ 지전설(지구 자전)은 홍대용, ④ 김육은 시헌력 도입과 연결됩니다.

단서 먼저 분야를 나눈 뒤 인물을 연결.

07 ② 현실을 조사해 제도와 기술의 개선을 찾는 것은 실학의 특징입니다. ① 제시된 활동은 명분·예법보다 현실 조사와 구체적인 개선을 중시합니다. ③ 학자들의 구체적 방안은 달랐습니다. ④ 조선의 현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⑤ 자료는 조사와 제안이며 시행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서 현실 조사 + 해결책 제안.

08 ④ (가) 유형원, (나) 이익, (다) 정약용입니다. ①은 (가)·(나), ②는 (가)·(다), ③은 (나)·(다)가 바뀌었습니다. ⑤는 세 곳의 연결이 모두 맞지 않습니다.

단서 차등 지급 / 최소 토지 보호 / 공동 경작·노동 기준.

09 ① 공통점은 농민 생활과 토지 제도 개혁이며 방법은 달랐습니다. ② 유형원은 신분별 차등을 인정했습니다. ③ 공동 경작은 정약용의 구상입니다. ④ 분배 기준은 일한 날수입니다. ⑤ 제안이 곧 전국 시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단서 목표의 공통점과 방법의 차이를 구별.

10 ③ 군사 공격은 북벌, 발달한 문물 학습은 북학입니다. ① (나)는 북학입니다. ② 두 이름이 뒤바뀌었습니다. ④ 유용한 문물을 배우자는 것이지 무조건 지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⑤ (가)의 상대는 청입니다.

단서 상대국 이름보다 행동을 확인.

11 ④ 『열하일기』의 저자는 박지원이며 수레·선박·화폐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①은 이익, ②는 유득공, ③은 이중환, ⑤는 유희와 연결됩니다.

단서 저술과 개혁 주장을 같은 인물에 연결.

12 ⑤ 박제가는 소비와 생산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① 유형원, ② 이익의 설명 자체는 맞지만 제시된 주장의 인물이 아닙니다. ③도 김정희의 연구를 설명하므로 자료와 다릅니다. ④ 설명 자체는 맞지만 제시된 사료의 인물이 아닙니다.

단서 물건을 찾는 사람과 만드는 기술의 관계.

13 ② 개혁안의 실현에 제약이 있었다는 한계와 후대에 준 영향을 함께 설명합니다. ① 모든 개혁안이 전국에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③ 실현의 한계가 사상적 영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④ 실학자는 시기와 입장이 다양했습니다. ⑤ 북학파는 선진 문물 수용을 통해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서 시행 여부와 의의를 따로 판단.

14 ③ (가)는 유득공이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는 역사 인식이며, (나)는 신경준·유희의 언어 연구입니다. ①·②·④·⑤는 연구 대상을 다른 분야로 잘못 분류했습니다.

단서 남쪽 신라·북쪽 발해 / 우리말과 글.

15 ① 자연환경과 인물·풍속·물산을 살핀 지리서는 이중환의 『택리지』입니다. ②·③은 역사서입니다. ④·⑤는 전국 지도로, 지역의 생활 조건을 설명한 이 자료의 책과 다릅니다.

단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설명하는 지리서.

16 ④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제작했습니다. 목판에 새겨 인쇄하고, 기호와 도로의 10리 표시를 사용했으며, 각 첩을 접어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① 정상기는 『동국지도』, ② 마테오 리치는 『곤여만국전도』, ③ 이중환은 『택리지』와 연결됩니다. ⑤ 지전설은 홍대용의 천문학적 주장으로 이 지도와 다릅니다.

단서 제작자·인쇄 방법·표시·휴대 방식을 함께 연결.

17 ② 박지원은 한문 소설로 양반층의 문제를 풍자했습니다. ① 글에 쓴 언어와 비판의 방향은 다릅니다. ③ 정약용은 삼정의 문란과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④ 향촌의 자치 규약은 향약이며, 시사는 문학 모임입니다. ⑤ 중인층의 문학 활동은 활발해졌습니다.

단서 문자의 종류만으로 작품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음.

18 ⑤ (가)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나)는 강세황의 「영통동구도」 입니다. ① 작가 연결이 틀렸습니다. ② 금강산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림은 「금강전도」 이며 (가)의 대상은 인왕산입니다. ③ (나)는 바위의 밝고 어두운 면을 달리했습니다. ④ 두 그림은 각각 인왕산과 개성 영통동의 실제 경치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단서 작품의 산천과 바위 표현을 작가·화법에 연결.

19 ③ 흰 바탕에 푸른 무늬가 있는 청화 백자입니다. ① 무늬가 푸르다고 바탕도 푸른 청자로 볼 수 없습니다. ② 분청사기와 청화 백자의 이름을 혼동했습니다. ④ 흰 바탕 위에 푸른 무늬가 놓여 있습니다. ⑤ 민간에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문방구와 생활용품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단서 바탕색 + 무늬색 + 물건의 쓰임.

20 ① 거중기를 고안한 사람은 정약용이며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의 제작자입니다. ② 팔상전의 재료·층수, ③ 화성 축조 시기, ④ 거중기의 인물·기능, ⑤ 경복궁 중건은 모두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단서 같은 조선 후기 인물이라도 업적을 구별.

단답형·짧은 서술형 해설과 채점 기준

21 **정답** **(1) 추사체 (2) 시사(詩社) (3) 진경 산수화**

해설 (1)은 서예, (2)는 문학 모임, (3)은 회화의 한 경향입니다. 분야와 이름을 함께 구별합니다.

채점 세 답을 각각 판정합니다. (2)는 한자를 쓰지 않아도 '시사'이면 정답입니다. (3)의 띄어쓰기 차이는 허용합니다.

22 **정답** **(1) 허준 (2) 정상기 (3) 김정호**

해설 의학서 한 권과 지도 두 개의 저자를 구별합니다. 지도는 『동국지도』·백리척을 정상기, 『대동여지도』를 김정호와 연결합니다.

채점 세 인물을 각각 판정합니다.

23 모범 답 **정약용은 마을에서 토지를 함께 소유·경작하고 일한 날수에 따라 생산물을 나누자고 하였다.**

채점 기준 '일한 날수(일한 양, 노동량)에 따라 나눔'이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함께 농사짓자고 했다'만 쓰면 잘못된 분배 기준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공동 소유까지 덧붙이는 것은 좋지만, 발문이 요구한 핵심은 분배 기준입니다.

24 모범 답 **통신사를 통해 조선의 성리학·의학·그림 등이 일본에 전해졌고, 조선도 일본의 학문이나 고구마 같은 문물을 받아들였다.**

채점 기준 ①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한 내용 한 가지 이상과 ② 일본에서 조선으로 받아들인 내용 한 가지 이상이 모두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서로 교류했다'만 쓰면 방향별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문화를 전했다'만 쓰거나 고구마만 쓰면 한쪽 방향만 설명한 것입니다.